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 정의와도덕

〈안코츠 (Ancoats) 형제회〉와 〈런던윤리학회〉에서행한공개  
강연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정의와도덕  
〈안코츠 (Ancoats) 형제회〉와 〈런던윤리학회〉에서행한공개강연  
1888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

1888

## 편집위원회서문

편집위원회는 P.A. 크로포트킨의강연문 「정의와도덕」을출판하면서이 기회를통해몇가지사항을언급해야한다고생각했다.

크로포트킨의서문에서알수있듯이, 이소책자는강연원고였다. 그는 1888년 (혹은 1889년) 맨체스터의 〈안코츠형제회〉에서첫번째강연을, 다음에약간보완하여 〈런던윤리학회〉에서두번째강연을했다.

이강연과여기에서술된사상은향후크로포트킨의모든윤리학연구의출발점이되었다. 또한이강연이후크로포트킨은다른연구들과함께도덕의문제를연구하였으며, 1904-1905년사이에이주제를다른두편의영어논문을 - 「현대의윤리적빈곤 (The Ethical Need of the Present Day)」, 「자연의도덕 (The Morality of Nature)」 - 썼다. 두논문은영국의월간학술지 『19세기 (Nineteenth Century)』 (1904년 8월호와 1905년 3월호)에발표되었다.

크로포트킨은건강과여러다른절박한작업들그리고갑작스런제 1차세계대전과러시아혁명때문에도덕의문제에전념할수없었다. 비로소 1918년여름드미트로프시로이사한후에야크로포트킨은다시도덕의기원과발전그리고인간삶에서도덕의의미에대한이론연구에매진하게되었다.

이문제와관련된자료들을검토하던중크로포트킨은안코츠강연요약문과〈런던윤리학회〉에서행한강연원고를발견하고, 이원고를인쇄원고로다듬어독립된소책자형태로, 더큰규모의윤리연구서발행에앞서출판하기로결심하였다. 이러한목적으로그는영어로된강연원고를러시아어로번역하였고, ‘드미트로프, 1920년 1월.’이라표기된길지않은서문을썼다.

크로포트킨은 1920년내내주로‘윤리학’을연구하였으며, 사망하기몇달전인 1920년말에는「정의와도덕」을한번더출판하려하였다. 그는이목적을위해원고를다시읽고수정하였고, 이후원고표지에‘출판할것’과‘1920년 12-15사이에최종검토함’이라고기록했다.

이렇게크로포트킨은최종적으로이소책자를출판할수있게준비하였다. 편집위원회는고故크로포트킨의의지를즉각실현하고, 러시아독자들이위대한혁명이자휴머니스트의저작과접할수있게하는것을우리의도덕적의무라생각한다.

더구나현재의매우열악한출판상황때문에크로포트킨의마지막대작인『도덕의기원과발전』 1권이조간간빛을볼가능성이거의없음을고려할때더욱그러하다. 크로포트킨은『도덕의기원과발전』에서자신의윤리학을상세하게서술하고그에대한근거를밝히고있다. 「정의와도덕」은크로포트킨윤리학의주요요소들에대한압축적이며평이한설명이다.

## 저자서문

나는 맨체스터의 〈안코츠형제회〉에서 처음으로 「정의와 도덕」에 대해 강연하였다. 청중은 주로 노동자들이었고,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다. 이 형제회에서는 매년 겨울이면 일요일마다 내용이 충실한 강연회가 개최되곤 하였다. 그 결과 이들 청중 앞에서는 대중적인 설명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진지한 문제들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이 강연을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나의 강연 직전에 유명한 다윈주의자인 헉슬리(T. Huxley) 교수가 1888년 초 옥스퍼드 대학에서 모든 동료들을 경악하게 만든 강연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에서 다윈주의를 확산시킨 장본인이었다. 이 강연에서 다윈과는 반대로 그는, 인간의 도덕은 자연적인 기원을 가질 수 없으며 자연은 인간에게 악덕만을 가르친다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이었다.

헉슬리의 강연은 전반적인 놀라움을 야기하였고, 그에 대한 인상은 내가 도덕의 자연적 기원에 대한 강연을 준비할 때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의 강연 내용은 『19세기』 1888년 2월호에 게재되었고, 그 직후에 소책자로 출판되었다.

이년 혹은 삼년 후 나는 정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약간 보완하여 〈런던 윤리학회〉에서 같은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

영어로 썼던 상세한 강연 요약문, 그리고 안코츠 강연 원고의 몇 부분, 그리고 또 윤리학회 강연을 위해 보완한 내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러시아어로 정리하여 이제 출판하게 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중단했을 때도 있지만, 늘 도덕 이론 강연에서 언급한 견해들 중에서 몇몇을 과감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강연문을 안코츠의 청중을 위해 준비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심하였다. 다만 〈런던 윤리학회〉에서의 강연을 위해 작성했던 내용으로 〈안코츠형제회〉 강연문을 보완하였다.

P. 크로포트킨

드미트로프

1920년 1월

**친구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정의와도덕」을우리대화의주제로정했을때, 물론나는여러분에게도덕적인설교를하겠다는생각을하지않았습니다. 나의목적은완전히다릅니다. 나는여러분앞에서, 지금사람들이인류의도덕개념의기원, 그개념의참된근거와지속적인발전을어떻게이해하기시작했는가를분석하고, 이도덕개념들의지속적인발전에기여할수있는것을탐구하기를원합니다.

그런연구는특히오늘날필요합니다. 아마여러분들자신도, 우리들이사회관계의체계에서어떤새로운것이요구되는시대에살고있음을느끼고있을것입니다. 선진민족들사이에최근실현된, 지식과산업의빠른발전은가장중요한사회적문제들의해결을지연시킬수없게만들고있습니다. 새롭고더정의로운원리위에서삶을개조할요구가감지되고있습니다. 사회에서그런요구가성숙된다면, 도덕의기본개념들을재검토할수밖에없다는것이옳다고생각될것입니다.

다른가능성은있을수없습니다. 왜냐하면한시기의사회제도, 관습, 습관과같은사회체제는고유의도덕체계를사회속에유지합니다. 그리고서로다른사회계층들사이의관계에서발생하는모든본질적변화는이에상응하게기존도덕개념들을변화시킵니다.

서로다른발전단계에있는민족들의삶을보도록합시다. 오늘날의유목민들을예로들어보겠습니다. 몽골족, 퉁구스족그리고오늘날우리가야만족이라고부르는종족들이있습니다. 그들이양을도살하여고기를먹을때, 모든마을사람들을공동식탁에초대하지않으면, 수치스런행동으로간주될것입니다. 나는시베리아오지와사안산맥의탐사여행을통해얻은, 개인적인경험을토대로그것을알게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아주가난한야만인들인호텐토트족을예로들어봅시다. 그들중하나가숲에서음식을먹을때“나와식사를함께할사람은없습니까?”라고세번크게외치지않으면, 얼마전까지만해도그들사이에서범죄로생각되었습니다. 다윈도파타고니아<sup>1</sup>의가장낮은발전단계의야만인들사이에서그런특성을발견하고놀란사례가있습니다. 다윈이그들중하나에게아주작은음식조각을주었는데, 그들은똑같은크기로음식을서로나누어먹었던것입니다. 그뿐만이아닙니다. 북아시아와중양아시아모든곳에서, 유목민들사이에는법의역할을하는관습들이있습니다. 가령누군가나그네에게잠자리제공을거부해서그가배고픔과추위로죽게되었다고합시다. 사망자의가족들은잠자리제공을거부한자를살인자로서추적하여, 그에게혹은그의가족들에게살인의경우에관습이부과하는벌금을요구할권리를갖습니다.

도덕에대한이런여러개념들은씨족제도에서마련되었습니다. 우리의경우이관습들은국가로살기시작한이후사라지고말았습니다. 우리의도시나마을에서는순경이나경찰이집없는유랑객을보살피고, 길거리에서얼어죽을수있는경우에는그를관할시설로, 수용소혹은노동자숙소로데려갈의무를갖습니다. 물론우

<sup>1</sup> 역주 - 파타고니아 (Patagonia). 아르헨티나남부에있는지방. 건조한초원으로목양牧羊이 활발하였다.

을때, 헉슬리는자신의위대한선생을따르지않았습니다. 도덕성을자연과학적으로설명하는대신, 한때열성적자연과학자였던헉슬리는신학과자연과학사이에 서어정정한태도를취하고말았습니다.

허버트스펜서 (Herbert Spencer) 는발전이론위에세운합리철학연구에평생을바쳤고, 여러해동안도덕성의문제를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그는도덕적본능에대한설명에서완전히다윈을따르지는않았습니다. 그는동물들사이에서의 상호부조를뒤늦게인정했습니다. 그는 1888 년잡지 『19 세기』 에발표된글에서, 동물들중몇몇종류에게도덕감정의단초가있다는것을인정했습니다. 그후에도 『윤리학원리 (Principles of Ethics)』 에대한부록에서, 여전히스펜서는원시인은‘사회계약을체결하고’어디선가모셔온현명한입법자들에게종속될때까지는도덕감정이없었다고하는홉스를옹호하였습니다. 말년에스펜서는약간의 양보를하기도했지만, 그럼에도헉슬리처럼그에게원시인은여전히싸움을좋아하는동물, 강제, 법그리고부분적으로이기적인판단들을통해서만이웃에대한도덕적관계의몇몇개념들을획득한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과학은이미오래전에자연의빛이흐릿한색유리를통해비치는파우스트의서재에서빠져나와야했습니다.

학자들은먼지가쌓인서가에서가아니라, 자유로운평원과산에서, 태양의밝은빛소계서자연을연구해야할때입니다. 19 세기에아메리카의인적없는광활한스텝에서과학적동물학의위대한창시자들이했던것처럼, 자신의믿음으로개종시키려는목적이아니라원시인들의관습과습관그리고도덕적성성을연구하려는 목적으로그들과함께살았던참된인류학의창시자들이했던것처럼말입니다.

그때그들은도덕성이자연과관계없는것이절대아님을알게될것입니다. 모든동물의세계에서어미는새끼들을보호하기위해목숨을깁니다. 무리지어사는동물들은힘을합쳐맹수들을물리치고, 먹이를찾아서식지를웁길때에는거대한무리를이룹니다. 원시인들은동물들로부터도덕적교훈을얻습니다. 이런모든것을 확인한후에야스스로신의대리인이라고생각하는우리학자들은신학자들이그토록자랑스럽게생각하는것이어디에서유래했는가를이해하게될것입니다. “자연에는도덕이없다.”는말을반복하는대신그들은, 선과악에대한그들의개념이 무엇이든지, **그개념은자연이그들에게처음으로주었고, 나중에는인류의점진적 발전과정이지공한것을표현한것에**다름아니란사실을이해하게될것입니다.

최고의사람들이도달한최상의도덕적이상은동물의세계에서, 원시인들에게서그리고오늘날문명사회에서우리가때때로발견하는바로그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동물을 지키기 위해 혹은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때 발현됩니다. 이보다 더 높은 단계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없을 것입니다.

리들중어느누구도지나는사람에게잠자리를 **제공할수있습니다.** 즉이것은금지되어있지않습니다. 그러나누구도이렇게하는것을 **의무로**여기지않습니다. 깊은겨울밤집없는행려자가배고픔과추위로안코츠거리중한곳에서사망하는경우에는그의가족들중누구도여러분들을살인자로추적하겠다는생각을하지않을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행려자에게는가족이없을수도있습니다. 씨족사회에서는있을수없는일입니다. 왜냐하면모든씨족은가족들로구성되기때문입니다.

여기에서나는씨족제도와국가의장점들을비교하려는것이아닙니다. 단지나는인간의도덕개념들이살고있는사회체제에따라변한다는것을보여주기를원합니다. 특정시기특정민족의사회체제와도덕은서로밀접하게연결되어있습니다.

바로이것이사람들사이의관계를재정립할필요성이사회에생길때마다, 도덕문제에대한활기찬검토가시작될수밖에없는이유입니다. 그리고통용되는도덕개념들에대한고민없이, 사회체제의개혁에대해말하는것은극도로가벼운처사일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정치와경제문제에대한우리의모든논의의토대에는도덕문제가놓여있습니다. 공산주의에대해논의하는경제학자들예로들어봅시다. 그는이렇게말합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어느누구도일하지않을것입니다. 왜냐하면아무도기아의위협을느끼지않을것이기때문이지요.”공산주의자는이렇게대답할것입니다. “왜아니지요? 일하기를중단한다면총체적인굶주림에빠진다는것을사람들이이해하지못할까요? 모든것은어떤공산주의를도입하는가에달려있습니다.”도로포장, 거리조명, 전차, 도시교육시설등의형태로, 유럽과미합중국 의도시생활에얼마나많은도시공산주의가도입되었는지보기바랍니다.

여러분은순수경제적인문제가어떻게인간의도덕적본성에대한논의를로귀결되는지를보고있습니다. 인간은공산주의체제에서살능력이있는지를묻습니다. 문제는경제영역으로부터도덕영역으로이동합니다.

아니면사회생활에서의새로운제도에대해, 예를들어아나키즘이론혹은전제국가에서입헌국가로의이행에대해논의하는두정치가를보도록합시다.

이미수립된권력을옹호하는학자는말합니다. “무슨그런말을. 사람들에게재갈을물릴강력한손이없으면, 모두가강도가될것입니다.”그에게다른학자가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감옥의공포가없다면, 당신도강도가될것이라는결론을내려야하겠군요?”결국사회의정치체제에대한문제는인간의도덕적성격에대한제도의영향이란문제로귀결됩니다.

바로이것이오늘날도덕문제에대한관심이활발하게일어나는이유입니다. 또한, 내가여러분과함께윤리에대해, 즉인간의도덕개념의기초와기원에대해고찰하려고결심한이유입니다.

최근에매우중요한이질문과관련된연구들이적지않게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중에서나는얼마전저명한다윈주의자이자교수인헉슬리가옥스퍼드대학에서행한강연 「진화와도덕」 만을자세하게다루도록하겠습니다. 나는이강연

을알고나서많은것을배울수있었습니다. 왜냐하면헉슬리는강연에서 **도덕의기원에대한문제**를아주충분히분석하였기때문입니다.<sup>2</sup>

헉슬리의강연은언론에서일종의다윈주의성명서로, 현대과학이도덕의토대와기원에대해말할수있는결론으로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고대그리스에서부터우리시대에이르는거의모든사상가들이연구했던문제입니다.

이강연이특별한의미를갖는것은, 강연이저명한학자이자다윈진화이론의중심해석자들중하나의견해를보여주기때문입니다. 또한저자는강연에멋진문학형식을가미하였으므로, 사람들은최고의영국산문작품을대하듯이이강연에반응하였습니다. 주된의미는, 유감스럽게도강연이요즘지식인계급사이에만연된 견해들을표현하고있으며, 따라서이견해들을이계급대부분의종교라고부를수있다는것입니다.

헉슬리가강연에서끊임없이반복하는핵심사상은다음과같습니다. 그에따르면, 세계에는두종류의현상이완성되고있으며, 자연의우주적과정그리고윤리적, 즉도덕적과정이진행되고있다는것입니다.

‘우주적과정’은식물, 동물그리고인간을포함하는생명적인그리고비생명적인자연의모든삶입니다. 이과정은바로“이와발톱을드러낸혈투”라고헉슬리는주장합니다. 이것은“생존을위한, 모든도덕원리들을부정하는, 필사적인경쟁”이란것입니다. “고통은감정을소유한모든생물의운명이다. 고통은우주적과정의본질적부분을이룬다.”고합니다. 호랑이와원숭이가갖고있는생존경쟁방법들은이과정의참되고특징적성격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인간에게서도자기주장, 빼앗을수있는것모두를빼앗는비양심적강탈, 자신의것으로할수있는모든것의집요한소유가가장적합한경쟁수단이됩니다. 이소유는생존경쟁의정수를이룹니다.

우리가자연에서얻는교훈은결국‘유기적악이란교훈’입니다. 자연이도덕과관련이없다고, 즉자연은도덕을알지못하며도덕적질문에대해어떤답도제공하지않는다고말해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 자연은명백히비도덕적이라는것입니다. “우주적자연은절대로도덕의학교가아니다. 반대로자연은모든도덕에적대적인것들의총사령부다.”(소책자로출판된헉슬리의첫번째강연문 27 쪽) 란것입니다. 때문에자연에서어떤가르침도끌어내서는안되며, 자연은“때문에우리가선이라고부르는것보다우리가악이라고부르는것을선호한다.”(31 쪽) 고합니다. 결국“도덕적관점에서더좋은것, 우리가덕혹은덕행이라부르는것을실현하기원할때, 우리는모든관계에서원시적행동노선을, 우주적생존경쟁에서성공으로안내하는행동노선을따르도록강요받는다.”(33 쪽) 는것입니다. 헉슬리의견해에따르면, 인간이자연의삶으로부터끌어낼수있는가르침은바로이러합니다.

그러나그다음에는사람들이유기적사회를이루어살기만하면어디서인지도르지만, 뜻밖에도사람들사이에‘윤리적과정’이나타난다고합니다. 이러한‘윤리적과정’은자연에서배운모든것과무조건대립합니다. 이과정의목적은모든존재조건들의관점에서가장적자인사람들의생존이아니라, “도덕적관점에서최상

그대의무기력한노년같았을것을...

극단적개인주의가말과행동으로설교되는지금도, 상호부조는인류삶에서어젠히가장본질적인부분을이루고있습니다. 삶속에서자선의형태가아니라, 우리안에서발전하고있는전인류적인감정을향한자연적인출발의형태로상호부조에더욱더많은의미를부여하는것은외부의힘이아니라우리내부의힘에달려있습니다.

이제결론으로도덕적감정이라고하는것이, 제가발전시킨관점에서, 우리에게어떻게제시되고있는지를보도록합시다.

도덕에대해쓰는거의모든사람들은도덕을위로부터의게시, 타고난자연적감정혹은개인적, 합리적으로이해한개인적혹은사회적이익과같은어떤 **하나의원리**로수렴시키려고노력합니다.

사실, 도덕은인류안에서서서히발전했고여전히발전하고있는복잡한감정과개념시스템인것같습니다. 이시스템에서적어도세가지구성성분을구별해야합니다. ① **본능**, 즉유전된습관, **사회성**. ② **우리의성의 개념 - 정의**. ③ **이성에의해고무된감정**입니다. 이것을 **자기희생**혹은 **헌신**으로부를수있을것입니다. 이감정안에서희생과헌신이없고, 대신본성의꾸며낸위압적요구만이충족될때, 이감정이가장완전하게표현될수는없습니다. 관용이라는단어로도이감정을완전하고올바르게표현할수없습니다. ‘관용’이란단어가인간자신의행동에대한최상의자기평가를전제하고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도덕적인인간은그러한평가를거부합니다. 바로여기에도덕의참다운힘이있습니다.

모든사람들은자신의도덕충동을초자연적인영감때문이라고생각하기를좋아합니다. 대부분의사상가들도이유혹을이기지못했습니다. 게다가다른사람들처럼공리주의자들도올바로이해한이익의발전으로도덕을설명하려하였습니다. 이렇게해서서로대립하는두학파가나타났습니다. 그러나우리중에서인간의삶을이해하고교회의편견에서해방된사람들은광범위하게발전된상호부조, 정의에대한합리적판단, - 기호가기록한것처럼 - 강력한지혜와감정을소유한사람들의사심없는충동이과거그리고지금까지도얼마나중요한가를이해할것입니다. 그리고그들은인간본성의이세특징속에서도덕에대한설명을찾아야함을이해할것입니다.

극단적개인주의, 즉‘자기자신을우선염려하는’행동방식이말과행동으로설파되고있는지금도, 상호부조와사회에대한사심없는헌신은사회생활과사회의지속적발전의본질적부분을구성합니다. 그결과인류는그것이없다면몇십년조차도살아남을수없을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도덕의본질과발전에대한이런사상은현대과학연구가들의생각속에서충분한반향을얻지못하고있습니다. 헉슬리는다윈의올바른해석자로인정받고있으며, ‘생존경쟁’과새로운종의선택에서생존경쟁의의미를해설하는작업을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다윈이인간의도덕개념을사람과동물모두에게한가지로존재하는본능 (사회성) 의결과라고설명했

다. 강한 폭풍이 불던 날, 그배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얇은 곳으로 밀려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어머어마한 파도가 배를 덮쳤고, 성인 다섯과 어린이 아이 하나 로 이루어진 승무원들은 활대에 몸을 묶고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얇은 해안에서 구조선은 바다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해변으로 다시 밀어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아침부터 해변에서 있었습니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후 3 시가 되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 월이 었거든요. 돛대 에 몸을 묶은 어린이의 절망적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것은 미친 짓이고 절대 바다로 나갈 수 없 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먼저 한 번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조선을 다시 띄웠 습니다. 한참을 파도와 싸운 후에 우리는 드디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때 파도가 구 조선을 덮쳤습니다. 우리들 중 둘은 익사했습니다. 조는 불쌍하게 벅전의 밧줄에 감 겨, 우리 눈앞에서 파도에 허우적거렸습니다... 결국 엄청난 파도가 우리 모두를 구 조선에서 해변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다음 날 여기서 2 km 정도 떨어진 논더미 속에서 발견되었지요. 스페인 선원들은 텐게니스에서 온 대형 구조선의 해구 출 되었 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물론 온다 계곡의 광부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폭발 로 막힌 지하 강도를 이틀 동안 뚫었습니다. 붕괴된 강도에 갇힌 동료들을 구하기 위 해서였습니다. 매 순간 반복되는 폭발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새로 운 붕괴로 매몰될 수도 있었습니다. “폭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몰 지역 반 대쪽에서는 동료들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들이 보내는 아직 살아 있 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돌더미를 뚫고 그들에게로 갔습니다.”

크고 작은, 진정으로 이타적인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그렇습니다. 자신 과 주변 사람들을 동일화할 수 있게 교육 받은 사람, 내부에 감정, 지혜, 의지의 힘을 느끼는 사람은 타인을 돕기 위해 자유롭게 그것을 제공하고, 이승에서의 혹은 미지 의 저승에서의 어떤 보상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타인의 감정을 이 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그들의 삶을 함께 느낍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 다. 그는 타인들과 기쁨과 아픔을 나눕니다. 그는 그들 을 도와 삶의 어려운 시간을 견 딜 수 있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식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 고, 그들에게 더 좋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불어 넣어 주는 능력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그는 미래를 위한 일 에 그들을 초대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그는 이 속에서 고통이 아니라 생명 추구 의 완성을 봅니다. 허약한 무위의 삶과 바꿀 수 없는 삶의 충만을 보 니다. 자기 몫의 고통을 짊어져야 할 때, 그는 레르몬토프의 *므찌리*<sup>20</sup> 처럼 말할 것입 니다.

... 나의 삶은  
이 행복한 3 일이 없었다면,  
슬프고 음울한

인”(33 쪽) 사람들의 생존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과정은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자연으로부터 유래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법과 관습을 통해 발전하기 시 작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도덕이 만들어진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도덕적 과정은 어디로부터 탄생했을까요?

인간의 도덕 원리들은 입법자에 의해서 부여되었다는 흄스<sup>3</sup>의 견해를 반복하는 것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흄스는, 입법자는 **자연의 관찰로부터 그런 생각을 차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전의 동물 사회에도, 원시인들에게도 윤리적 과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흄스가 옳 다면 이것으로부터 윤리적 과정, 즉 인간의 도덕 원리는 절대로 자연적 기원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원의 출현에 대한 유일하게 가능한 설명으로는 결국 초자연적 기원만이 남습니다. 가령 선행, 우정, 상부상조, 충동과 욕망의 자제 自 制와 희생과 같은 도덕적 습관들이 절대로 인간이 전의 혹은 원시적 군집 상태로부터 발전할 수 없었다면,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원을 초자연적인, 신적인 계 시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윈주의자이며 자연과학자인 흄슬리의 결론은 그를 불 가지론자로, 즉 무신론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러 나 그런 결론은 불가피합니다. 흄슬리가 자연의 삶으로부터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 가르침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주장했을 때, 남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즉 도덕 의 초자연적 기원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며 동시에 저명한 자연과학자 인 조르쥘 미바르트 (George Mivart) 는 흄슬리의 강연문 출 판 이후 즉시 『19 세기』 에 논문 「**흄슬리 씨의 진화**」 를 게재하였습니다. 여기에 서 그는 강연자가 교회의 가르침으로 귀환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미바르트는 전적으로 옳습니다. 사실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윤리적 과정’이 자연에 없다고 주장하는 흄슬리가 옳든지, 아니면 다윈이 옳을 것입니다. 자신의 두 번째 저서인 『인간의 유래』<sup>4</sup>에서 다윈은 베이컨 (F. Bacon) 과 오귀스트 콩트 (A. Comte) 를 따라, **동물의 무리에서는 군집 생활의 결과로 사회적 본능이 강하게 발전하며, 그 결과 본능은 가장 지속적인 속성이 되고, 이 본능은 자기 보존의 본능을 압도 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sup>5</sup> 샤프츠베리를 따라 다윈이 보여 준 것처럼, 이 본능은 원시인의 경우에도 강력했습니다. 또한 원시인에게서 이 본능 은 언어, 전승, 습득된 관습 덕분에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점이 옳다면, **인간의 도덕 원리는 거의 모든 생물의 속성이며 모든 살아있는 자연에서 관찰되는 사 회성의 본능이 지속적으로 발전된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인간에게서 이 본능은 이성, 지식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관습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과 그 결과인 예술과 문자 사용은 인간이 생활의 경 험을 축적하고 상호 보조와 연대의 관습을, 즉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상호 의존의 관습 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의무감이 어디로부터 오 는지 이렇게 해서 분명해 집니다. 칸트는 의무감을 절묘한 문장으로서술한 바 있습

니다. 그러나이문제에대해골몰하면서도자연법칙에맞는설명을발견하지는못하였습니다.

자연을가깝게알고있던다윈은도덕감정을그렇게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물론자연의참된삶을보지않고, 박물관의박제를통해서만동물의세계를연구하며, 우리의아름다운분위기에따라그것에대해서술한다면, 그때우리에게남는것은어떤비밀스런힘속에서도덕감정의해명을구하는것뿐입니다.

실제로학슬리는그런상황에처하고말았던것입니다. 그러나참이상한일이지만, 강연후몇주가 지나강연문의소책자를발행하면서학슬리는보충설명을했는데, 이것은서로대립하는자연적인그리고도덕적인두‘과정’이라는기본개념을완전히부정하는것이었습니다. 이보충설명에서그는, **동물사회에서실천되는상호부조속에서, ‘윤리적과정’의원리를관찰할수있다는것을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그는강연에서는이원리의존재를열렬히부정했었습니다.

학슬리가왜몇주전에했던강의의본질을전면반박하는보충설명을하게되었는지우리는모릅니다. 다만가정할수있는것은, 개인적으로그의친구인옥스퍼드대로마니스 (G.Romanes) 교수의영향때문일것이란사실입니다. 알려진바에따르면, 로마니스교수는당시동물의도덕에관한연구자료를준비중이었고, 학슬리는위원장으로서옥스퍼드대학에서‘로마니스’강연을했었습니다. 이러한흐름속에서그의친구들중누군가가영향력을행사했을수도있습니다. 그러나나는그런놀라운변화의원인을분석하지는않겠습니다. 훗날학슬리의전기작가가이것을연구할것입니다.

우리에게중요한것은다음과같습니다. 자연에서도덕의발단에대한문제를진지하게연구하는사람들은누구든지, 사회를이루며사는거의대부분의동물들사이에서사회적삶은그들의본능의, 즉유전된습관들그리고도덕적성격의필연적발생과발전에이르게합니다.

그런습관들이없다면사회적삶은불가능하게될것입니다. 때문에우리는새그리고보다고등동물인포유류에서도덕개념의발단을찾았습니다.(곤충류의발전에서우위를점하는개미, 땅벌, 꿀벌에대해서는더이상말하지않겠습니다.) 그것들에게서우리는이미필수적인것이되어버린, 사회를이루며사는습관과또다른습관을찾고있습니다. 두번째습관은 **‘남들이너에게행하기를원하지않는것을너희도남에게행하지말라.’**는것입니다. 우리는또한사회의이익을위한자기희생을그들사이에서아주자주발견할수있습니다.

앵무새무리속에서젊은앵무새가다른앵무새둥지에서새끼암컷들을끌어내면, 다른앵무새들이그놈을공격합니다. 봄에아프리카에서우리나라로 돌아온제비가지난해에남의것이었던둥지를차지하는경우, 그장소의다른제비들이그놈을둥지에서던져버립니다. 한무리의펠리컨이다른무리의물고기사냥지역에침입할경우에후자는전자를쫓아버립니다. 그리고또여러가지사례가있습니다.

도요구하지않습니다.<sup>19</sup> 그자체가이미약속입니다. 왜냐하면그순간에그사람은달리행동할수없기때문입니다. 다른사람에게혹은인간전체에게무엇인가를할수있는가능성과힘을느끼는것그리고그와더불어그런행동은이성에의해정당화됨을아는것, 바로그것자체가이미그렇게행동해야한다는약속입니다. 우리는그것을‘의무’라고부르기도합니다.

기오는계속이렇게말합니다. 물론이러저러하게행동하기전에우리내부에서는자주투쟁이발생합니다. 인간은한덩어리로주조된완전한어떤것을제시하지않습니다. 반대로우리들개개인속에는어느정도의개성과어느정도의성격이결합되어있습니다. 동경하는것과마음이끌리는것이부조화상태에있어갈때마다서로모순된다면, 그때삶은견딜수없는것이되고말것입니다. 어느것도, 심지어죽음도지속적인분열과영원한광기로이끄는충돌보다낫습니다. 때문에인간은이러저러한편에서이러저러한결정을내립니다.

우리의양심과이성이취해진결정을부정직한, 소심한, 속물적인것으로여기고, 이에분노할때가종종있습니다. 그때보통사람은어떤변면, 즉정당화를위한자기기만을고안해냅니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에, 특히정직하고강한성격의경우에변면은불가능합니다. 비록무의식적이지만, 내적인존재의요구가우리를강하게됩니다. 그때우리가양심이라부르는것과이성의일치가새롭게확립되고, 조화가이루어집니다. 이조화는인간에게완전한삶을살수있는가능성을제공합니다. 그것은현격하게강력해진, 즉완전하고즐거운삶, 그앞에서있을수있는고통들은힘을잃게되는삶입니다.

그런삶을이해하고, 그런삶을사는사람은그삶을보잘것없는무위도식과바꾸지않습니다.

그런경우그사람이우리가‘희생’이라부르는것을행한다면, 그의눈에이것은전혀희생이아닙니다. 기오가기록한것처럼, 개화후에필연적으로죽음이찾아와도, 식물은꽃을피워야합니다. 바로그와같이사람은사람들의고통에대해넘치는동정을느끼거나지적인생산성혹은창조적능력의육구를느낄때, 다음에어떤일이일어나는가에상관없이자신의힘을자유롭게제공합니다.

보통그런행동들을자기희생, 자기부정, 헌신, 이타주의라고부릅니다. 그러나이모든명칭들은신빙성이부족합니다. 왜냐하면그런행동을하는사람은자주스스로육체적혹은심지어도덕적고통을스스로에게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이고통대신에동물적무관심을선택하지는않을것이기때문입니다. 나아가자신이완성해야한다고여기는것의실현에필요한의지의부족을선택하지도않을것이기때문입니다.

여러가지중의한예를소개하겠습니다.

한때나는영국남쪽해변의작은마을에살았습니다. 그곳에해상재난구조기가있었습니다. 나는해안경비대원들과대화를나누었습니다. 한대원이지난겨울오렌지를적재한작은스페인배의선원들을구출한이야기를우리에게해주었습니다.

만그행동들은진정으로도덕의범위에속합니다. 본질상그것들만이‘도덕적’이라 불릴자격이있습니다.

언제나모든인류사회는가장처음부터그런종류의행동경향을발전시키려노 려했습니다. 교육, 민요, 전설, 도덕시, 예술, 종교는이런흐름속에서기능하였 습니다. 그런행동들은 **의무**로격상되었고, **‘의무감’**은다양하게발전을추구했습 니다. 그러나유감스럽게도, 그런행동에대한현세혹은내세에서의상을약속할 때, 사람들은자신혹은동포를타락시키는결과를낳았습니다. 정의, 즉평등권이 사회생활의기초로여겨지는사회에서는자기희생을위해어떤유혹적제한도요구 되지않는다는생각은지금에서야널리퍼지게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기희 생’이란용어자체가그런행동들의본질을적절하게표현하지는않습니다. 왜냐하 면대부분의경우, 인간은자신의힘을모든사람들을위해나누어주면서, 반대급부 로그사람들이자신에게무엇을줄것인가를묻지않기때문입니다. 그는바로그런 계행동합니다. 왜냐하면그의본성이그렇게요구하기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개 들로부터새끼를구출하기위해나섰던개코원숭이처럼, 그는다른식으로행동할 수없기때문입니다. 종교에대해서도, 칸트의명령에대해서도들어본적이없고, 온갖실용적인의도도없었던원숭이처럼말입니다.

‘의무감’이도덕적힘이라는것은논쟁의여지가없습니다. 그러나그것은두자 연적욕망이서로대립하고우리가어떻게행동할까망설일때, 이런어려운경우에 만타나야할것입니다. 거의대부분의경우소위‘희생적인’사람들은의무감을상 기시키지않아도잘해나가고있습니다.

너무일찍사망한, 매우공감이가는프랑스사상가마리-장기오 (Marie-Jean Guyau) 는내가도덕의세번째구성요소라고칭한것의참된성격을, 내가틀리지 않다면최초로완전히이해했고설명했습니다.

그가기록한바에따르면, 우리는우리자신을위해필요한것보다더많은생각을 갖고있으며, 우리는다른사람들과그생각을나누어야합니다. 왜냐하면우리는달 리행동할수없기때문입니다.

우리는우리에게필요한것보다더많은눈물혹은즐거움을갖고있습니다. 그래 서우리는아까워하지않고그것을타인들에게나누어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중많은이들은개인생활에필요한것보다더많은의지 와에너지를갖고있습니다. 때로이의지의잉여는협소한이성의지배를받아침략 자를만들기도합니다. 그러나그것이사회성이란정신속에서발전된, 폭넓은이성 과감정의지도를받는다면, 때로그것은새로운종교혹은사회의개혁을완성시키 는, 새로운사회운동의창시자를만듭니다.

그러나이모든경우에우리를주관하는것은주로자기힘에대한의식그리고그 힘을사용하려는욕구입니다.

그외에, 감정이이성의해당성을획득한다면, <strong> 이미감정은어 떤다른상급의제재, 동의그리고그렇게행동한다는외부로부터부과된어떤약속

지난세기에동물학의위대한창립자들과현대의많은관찰자들은유사한사실 들을다수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런사실을모르는사람은한번도자유로운자연 속에서연구하지않은동물학자들뿐입니다.<sup>6</sup>

때문에사회성과상호부조의관습은동물세계에서만들어졌으며, 원시인들은 동물의삶에나타난이특징을이미아주잘알고있었다고 (가장원시적인민족들의 전설과신앙에서분명하게알수있듯이) 단언할수있습니다.<sup>7</sup> 지금까지남아있는 원시인간사회들을연구할때우리는그들속에서사회성의관습이지속적으로발전 하고있음을발견합니다. 나아가연구정도에따라우리는개인의횡포를억제하고 평등의원리를확립하는일련의풍속과관습을밝혀내고있습니다.

평등은씨족관습의핵심도대를이루고있습니다. 예를들어누군가와싸우다씨 족의다른구성원이피를흘리게만들면, 그도동일한양의피를흘려야만합니다. 그 가같은씨족혹은다른씨족의누군가에게상처를입히면다친사람의친척들중하나 는가해자에게혹은가해자의씨족중의하나에게동일한크기의상처를가할권을 갖거나, 심지어어떻게해야할의무를갖습니다. 성서의규칙인“눈에는눈, 이에 는이, 상처에는상처, 생명에는생명, 그러나그이상은아니다.”<sup>8</sup> 여전히씨족제 도속에살고있는모든민족들에게서지금까지도성스럽게준수되는규칙입니다. ‘이 에는눈’혹은‘가벼운상처에는치명적인상처’는평등과정의에대한통용되는표상 을거스르는것입니다. 이런개념은많은원시종족의의식속에아주뿌리깊게박혀 있고, 그결과사냥꾼이인간과유사한공과같은동물의피를흘리게만들면, 사냥에 서집으로돌아오는길에곰의정의를위해동료들의도움을받아야자기피를조금흐 르게합니다. 그런많은관습들은문명사회에도높은도덕규칙들과나란히과거의유 산으로남아있습니다.<sup>9</sup> 그러나씨족제도에서다른개념들도조금씩발전합니다. 모욕을가한사람은이제중재를모색해야하고, 그의친척들은중재자로서나서야 합니다.

정의, 즉평등에대한원시적표상을좀더자세히들여다보면결국그표상은, 네 가그런대접을바라지않는것처럼, 너도씨족의구성원에게절대로그런대접을하 지말라는바로그의무를표현하고있음을알게될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바로모 든도덕의그리고도덕에대한모든학문즉윤리학의제 1 기본원리를구성하는것입 니다.

그러나이것으로충분하지는않습니다. 가장오래된원시종족들속에서이미우 리들은훨씬더높은원리를찾고있습니다. 알류트<sup>10</sup>를예로들어봅시다. 이들은가 장오래원시종족인에스키모족의한분파입니다. 탁월한인물인베나민선교사의 업적덕분에우리는이들을잘알고있습니다.<sup>11</sup> 우리는이규칙들을빙하기이후형성 된인간의도덕개념도모델로생각할수있습니다. 나아가유사한규칙들을우리는다 른원시종족들에게서도발견합니다. 이들규칙에는단순한정의의경계를벗어나 는어떤것이있습니다.

실제로 알류트에게는 두 종류의 규칙이 있습니다. 의무규정과 단순한 조언입니다. 내가 이 강연의 서두에서 상기시켰던 규칙들처럼, 첫째 법주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 즉 정의·평등권의 원리에 기초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씨족의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곤궁에 빠진 씨족의 구성원을 돕고 한 조각 음식도 그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를 방어해야 합니다. 씨족의 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칙들은 환기시킬 필요도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것들은 씨족 생활의 토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격한 규칙과 함께 알류트와 에스키모들에게는 사전에 규정되지 않고, 단지 조언으로만 존재하는 일정한 도덕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을 해야만 한다.’와 같은 표현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그리스 표현 형식 (den)<sup>12</sup>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언들이 이 범주에 들어옵니다.**

알류트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 말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굶주린 사냥에서, 충분히 강하지 않고 나약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바다로 나가기를 두려워하거나 부딪기의 배에서 내동댕이쳐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겁쟁이 되는 것, 숨 쉴 수 없는 것, 바람과 싸울 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동료와 사냥할 때, 그에게 더 좋은 몫을 챙겨 주지 않는 것은, 바꿔 말해서 욕심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건을 교환할 때 물건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직한 판매자는 구매자가 제안하는 가격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알래스카의 알류트들, 북동시베리아의 추크치<sup>13</sup> 족뿐만 아니라 태평양 군도의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공통되는 규칙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강하고, 숨 쉴 수 있고, 관대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알류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약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즉 지혜 그리고 육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바람직한 평등의 원리에 혹은 적어도 종족의 모든 남성들 사이에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등가의 원리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약함을 보이지 말라. 나약함은 너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은 에스키모 여인들이 긴 북방의 밤에 어린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노래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위에서 서술한 사례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는 남자들, 혹은 충분한 근거 없이 화를 내는 남자들,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사귀지 못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남자들을 조롱합니다.<sup>14</sup>

그렇게 단순한 평등 혹은 평등권의 표현인 정의의 원리를 보완하기 위해 알류트들은 일정한 소망, 일정한 이상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씨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강한 자, 가장 현명한 자, 가장 덜 말썽 일으키는 자, 가장 관대한 자

그러나 여전히 정의는 도덕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서비스의 교환에서의 평등일 뿐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상업적 부채나 신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도덕의 구성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문에, 정의 그리고 그것의 필연적 결과인 평등권이 사회 체제의 기초가 될 때, 모든 인간 삶에서 심오한 변혁이 완성될 것입니다. 실제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어 기독교의 형태로 나타난 민중 운동, 그 다음으로 종교 개혁 시기의 민중 운동들, 마지막으로 프랑스 대혁명, 이것은 모두 평등권과 평등을 추구하였습니다.

입법을 통해 사회 모든 구성원의 평등권이 선포된 것은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서도 사회 생활에서의 평등권 원리의 실현은 아득히 멀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각각의 민족은 계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한계 층이 다른 계층 위에 존재합니다. 러시아에서 1861년까지, 북미에서 1864년까지 존속했던 노예 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에서 1797년까지 존속했던 광부들과 관련된 농노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에서 ‘구빈원 救貧院의 도제들 (workhouse apprentices)’이라 불리는 극빈 아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8세기 말까지 텍사스에 이 전트들은 영국 전역을 돌면서 극빈 아동들을 모집하여 헐값으로 랭커셔 (Lancashire) 의 면직 공장 노동에 투입하였습니다.<sup>18</sup> 마지막으로, 교육 받은 사람들이 ‘하급 인종’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추악한 태도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도덕 발전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은 결국 **정의의 인정**, 즉 모든 인간들에 대한 관계에서 평등의 인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회 도덕은 현 상태로 즉 위선적인 상태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위선은 현대 개인 도덕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이중성을 유지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 과정의 가도덕성의 모든 것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제 3의 구성 요소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희생, 관용의 정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실증주의자들은 이 감정을 **이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에고이즘 (egoism), 즉 **이기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기독교의 이웃 사랑 개념을 피해 갑니다. 그들이 기독교의 개념을 피하는 이유는, ‘**이웃 사랑**’의 개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을 희생하도록 인간을 움직이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희생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이 ‘타인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랑**도 절대 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는 이 타인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처럼 ‘**이타주의**’도 그런 종류의 행동의 성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은 **자연적** 일 때에만, 위로부터의 강제나 현재 혹은 미래의 삶에서 받을 포상의 약속 때문에 실현되는 것이 아닐 때에만 존귀한 때입니다. 즉 그런 행위들의 사회적 유용성 혹은 약속된 개인적 행복에 대한 고려 때문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내적 충동에 의한 것일 때에만 존귀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중들이이런시도에저항하여평등권을지켜냈는지에대한이야기가될것입니다. 씨족사회의모든제도들은평등권을수립하려는목적을가졌습니다. 그러나유감스럽게도역사가들은이러한점에대해서별로아는것이없습니다. 왜냐하면인간과인간사회의형식에대한두새로운학문인인류학과인종학이만들어지기시작했던 19 세기중반까지, 인간의원시제도들은별다른주목을받지못했기때문입니다.

씨족사회에대한많은사실들을수집한지금, 정의에대한기본개념은최초의원사인들에게서이미찾아볼수있으며, 최초의원시사회인씨족체제의규범이되었음을알수있습니다.

그러나이것으로충분하지않습니다. 이미우리는더나아갈수있습니다. 나는과학에이런질문을제기하려합니다. “정의의기초는인간의본성자체에있지않는가? 그렇다면정의는우리아주의생리학적특성을표상하는것이아닌가?”

형이상학의언어로말하면, 정의에대한개념은기본‘범주’즉우리아성의기본능력을표상하는것이아닌가라고물을수있습니다. 우리아성이평등권을찾는이유는 **우리아의사유기관들이그렇게하도록만들어졌음**을보여주는것이아닌가라고물을수있습니다. 두반구로구성된뇌가그렇다고할수있습니다. 우리가연구하면이문제에대한긍정적인답이나올것이라고나는생각합니다.

우리아의사유가수학에서등식이라알려진형식속에서지속적으로완성된다는사실은, 즉이형식속에서우리가발견한물리적법칙들이표현된다는사실은나의제안에상당한신빙성을제공합니다. 우리가어떤결론에도달하기전에우리아의성숙에서일종의대화가일어난다는사실도알려져있습니다. 이대화에서찬과반에대한결론이내려진다고합니다. 그리고몇몇생리학자들은여기에서우리아뇌구조의대칭성은아니라고해도, 여하튼그것의복잡한구성의발현을봅니다.<sup>16</sup>

아무튼정의의생리학적개념에대한나의제안이옳은가혹은그른가하는것은부차적인문제입니다. 중요한것은, 정의는도덕성의기본개념을이룬다는것입니다. 모두에대한동등한관계, 즉정의없이는도덕도있을수없기때문입니다. 지금까지윤리학에대해집필한사상가들사이엔놀라운견해차가지배하고있다면, 사상가들대부분이정의를도덕의제 1 근거로인정하기를원하지않았다는데에그원인이있습니다. 그러한인정은인간의정치적, 사회적평등권의인정이될것이고, 그결과그것은계급적구분을거부하게될것입니다. 그러나도덕에대해쓰는대부분의사상가들은이러한사실에승복하려하지않습니다.

바람직한사회체제에대한저서에서노예제도를유지한플라톤에서시작하여, 사도바울에이러 18 세기와 19 세기의많은저자들이이르기까지, 그들모두가불평등을옹호하지는않았지만, 그렇다고그것을부정하지도않았습니다. 심지어프랑스혁명이자유와더불어평등과정제애를기치로삼은후에도, 영국의고드윈 (W. Godwin) 과프랑스의프루동 (P.-J. Proudhon) 이정의를도덕적, 사회적체제의초석으로여겼습니다. 하지만지금까지그들은예외적인위치를점하고 있습니다.<sup>17</sup>

와동등하게되기를바란다는소망을표현합니다. 아직규칙은아니지만이러한행동방식은단순한평등권보다더높은무엇을제시합니다. 그것은도덕적완성에대한열망을드러내보여줍니다. 어떤경우에도우리들은모든원시종족들에게서이런특징을만나게됩니다. 그들은쉽게접할수있는동물들사이에서가장강한수컷이때로자신을희생하면서라도, 암컷들과새끼들을보호하기위해몸을던진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그들은생활환경에서나온이야기와노래에서종종목숨을무릅쓰고자연혹은적과싸워종족을구해낸사람들을찬양합니다. 그들은용기, 사랑, 솜씨, 기지, 민첩한행동에서탁월한능력을보여준사람들에대한긴노래를만들어부릅니다. 이들은아무런대가도바라지않으면서도, 다른사람들의행복을위해헌신하였기때문입니다.

이렇게혁슬리가말한‘윤리적과정’은동물세계에서시작되어인간에게로이동하였습니다. 여기서그것은전설, 시, 예술덕분에점점발전하여인류의개별‘영웅들’속에서그리고인류의몇몇수승들속에서최상의수준에도달하였음은명백합니다. 동족의이익을위해목숨을내놓을수있는태도는모든민족의시에서찬양을받았고, 후에고대의종교로변하였습니다. 씨족의무적인복수대신에원수에대한용서가추가되어이태도는불교와기독교의토대가되었고, 무엇보다기독교가국가종교가되기전까지, 기독교가다른종교들과구별시켜주는이기본입장을거부하기전까지기독교의성공에영향을주었습니다.

그렇게도덕개념들은전체자연에서그리고후에는인류에게서발전하였습니다.

고대에서오늘날까지, 사상가들의저술에나타난발전예에대해여러분께짧게 설명하고싶은마음이간절합니다. 그러나오늘은단념해야하겠습니다. 한번의강의로는그것을다할수없기때문입니다. 19 세기까지인간의도덕성에대한자연과학적설명은여전히불가능했다는점을지적하고자합니다. 물론스피노자 (B. Spinoza) 가그에접근했고, 이미베이컨역시명료하게말했습니다. 대신이제우리는잘검증된자료들을근거로다음과같은사실들을확신할수있습니다. 즉도덕개념들은생물들의존재자체와깊은관련이있으며, 그것이없다면생물들은생존경쟁에서살아남지못할것입니다. 그리고모든진보적발전혹은단순유기체로부터인간에이르는진화처럼그런개념의발전은불가피합니다. 대부분의동물들이군집성, 사회성또필요한경우에는자기희생의단초를갖지않았다면이발전은완성될수없었을것입니다.

우리는이런주장의증명에필요한자료들을아주많이갖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다윈은도덕의기원에대한논문에서, 『인간의유래』<sup>18</sup>라는저서에서카라반의개두마리와이집트의개코원숭이무리사이의싸움에대한이야기를소개하였습니다. (이싸움은동물학자인브렘 [A. Brehm] 이보고한것입니다.) 카라반이접근하자원숭이무리의산의가파른바위위 가장높은곳으로올라갔습니다. 그러나위험을벗어나바위위에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든수컷들은개를발견하자밀집대형을이루어내려와개들에게맹렬히달려들었습니다. 개들은놀라주인에게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원숭이를 공격하라고 독려를 받은 개들은 무리와 떨어져 바위에 앉아 있던 난된 새끼 원숭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늑은 수컷이 혼자 천천히 새끼에게로 가서, 개를 위협해서 쫓아 버리고 새끼의 등을 쓰다듬고 천천히 자신의 무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나이든 수컷들은 이 경우에 어떤 원리 혹은 명령에 따라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군집 동물들 사이에 수천년에 걸쳐 만들어진 동정 때문에, 군집성과 사회성의 감정에 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용기에 대한 의식 때문에 동료들을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매우 전도유망한 자연과학자인 세인트베리 (Saintsbury) 도 그런 사례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노쇠한 늑대 펠리컨을 발견했는데, 다른 펠리컨들이 물고기를 물고 먹이를 주러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윈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종의 이익을 위해 동물들이 희생한다는 사실은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개미, 알프스산양, 초원의 말, 모든 새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탁월한 자연 연구자들이 많은 사례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자연 연구에서 이제 우리는 도덕 감정과 개념의 출현과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기본요소, 도덕의 세 구성부분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성의 본능**입니다. 이로부터 다음 단계의 습관과 풍속이 발전합니다. 둘째는 **정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둘을 토대로 도덕의 세 번째 요소가 발전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우리가 **헌신 혹은 자기희생, 이타주의, 관용**이라 부르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이성에 의해 확인되는 감정으로, 본질상 **도덕 감정**이라 불러야 마땅한 것을 구성합니다. 모든 인간 사회에서 전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이 세 요소들로부터 도덕이 수립됩니다.

인간이 파괴한 개미 총으로부터 개미들이 서로 도와 유충을 구출할 때, 작은 새들이 맹금을 쫓기 위해 날아들 때, 철새들이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 저녁마다 일정한 장소에 모여나는 연습을 할 때, 수천마리의 산양 혹은 사슴이 함께 이동하기 위해 넓은 지역으로부터 모여들 때,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과의 투쟁에서 심지어 열악한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습관과 관습이 동물들 사이에 나타날 때, 이 모든 경우에 **발전된 본능이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발전된 본능이 없다면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멸종했을 것입니다. 사회성은 생존 경쟁에서 필수적인 기본 형식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윈주의자들 대부분은 바로 이런 자연의 법칙을 간과하였습니다. 아마 다윈 자신이 첫 번째 저서인 『종의 기원』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고, 두 번째 저서인 『인간의 유래』에서 만 언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본능 속에 **도덕의 제 1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상한 감정과 충동은 바로 이로부터 유래하여 발전되었습니다.

사회를 이루어 살았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서 사회성의 본능은 발전을 계속하였습니다. 자연 속에 살면서 최초의 원시인들은 협력하는 사회를 이루며 사는 동물들이 자연과의 투쟁에서 더 잘 살아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동물들의 사회적 삶이 자연과의 투쟁을 쉽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관찰은 속

담, 민담, 노래, 종교 그리고 몇몇 사회적 동물들의 신격화로 구비전승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성의 본능은 씨족에게서 씨족으로 전승되었고, 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연의 서두에서 언급한 씨족 제도의 규칙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성의 본능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원시인들에게서 더의 식적이 고되고 상한 새로운 개념들이 조금씩 발전하였습니다. 그것은 정의에 대한 개념으로, 도덕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정의의 본질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평등한 가치**, 그 결과로 나오는 그들의 **평등권**, 그들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함에 있어서의 **평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러한 평등의 인정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두려는 요구의 거부를 포함합니다.

그런 평등 개념이 없다면 도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프랑스어와 영어에서 정의와 평등은 동일한 어원의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équité*(정의)와 *égalité*(평등), *equity*(정의)와 *equality*(평등)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이미 군집 동물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수컷의 지배가 몇몇 동물군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칼 그로스(K. Groos)의 저서 『동물의 유희』를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동물군에서는 젊은 세대의 놀이가 강하게 발전했습니다. 새끼 짐승들과 다른 동물들의 놀이를 관찰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놀이에서 평등권의 엄격한 준수가 언제나 요구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미의 관심을 더 많이 갖지 못하게 하는 어린 동물 새끼들에게서도 같은 것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보듯이, 정의의 감정은 철새들에게서도 관찰됩니다. 철새들은 각자가 지난 해만 들었던 둥지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권력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간들 사이에, 심지어 가장 초기 원시인들 사이에서도 정의에 대한 개념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두 세 가지 예를 들었고,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씨족 사회를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중앙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원시 상황을 더 이상 씨족 사회와 혼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시 종족의 평등권에 대한 사실들을 모아 여러 권의 책을 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원시 종족들에게도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진 군인, 지도자, 마법사와 샤먼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 특정 권한을 소유하려는 열망은 아주 일찍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최고 권력’을 찬미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사실들만 강조합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불평등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태동하던 권리의 불평등과 모든 곳에서 완강하게 싸웠습니다. 때문에 옳은 역사는, 개별적인 사람들이 보통의 수준보다 더 높은 계급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대